

나는 세상의 빛

오늘은 예수님의 7 | am 중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 공부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 : 12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하시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어둠은 사망을, 빛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사망은 마귀가, 생명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생활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을 찾아 가는 여정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은 자신이 생명의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빛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 것은 빛으로 인도하는 인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 : 12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하신 말씀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7:2).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40 년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기 위한 명절입니다. 이 기간에 행하는 본문과 관련된 특이한 행사는, 명절 기간 동안에 성전에 큰 가지 촛대(candelabra)가 세워지고 여기에 불이 붙여 지고 사람들을 비추 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 40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나타나 그들을 밝혀주고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 위함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너희를 인도하는 빛이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나타나 너희의 광야 생활 40 년을 인도 했다. 그 것을 길이 길이 기억하라 ! 바로 이것을 기억하기 위한명절이 초막절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큰 가지 촛대가 세워져 사람들을 밝혀 주고 있는 그 때에, 예수님이 당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들어 가는 40년 과정동안 이 빛은 내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있어서 그들을 인도하고 지도하였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나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지만, 신약 시대에는 그 구름 기둥과 불기둥의 본체인 예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빛이 바로 신약시대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하시는 성령이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시 읽어 보십시오.

요한복음 8 : 12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는 이제 빛에 대하여 공부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빛은 하나님 자신을 지칭하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84 : 11 여호와 하나님은 해와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 해다, 빛이라 하십니다.

요한일서 1 : 5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다음에 빛은 예수님 자신을 지칭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 : 19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이 세상에 왔으되’ 하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왔으되’ 하는 의미로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빛

자체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빛으로 비기신 것은, 중보자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엔 빛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두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두움은, 첫째는 영적 어두움으로서 사망을 의미하고, 둘째는 영적 어두움의 결과로 온 도덕적 윤리적 어두움이 있습니다.

먼저 사망을 의미하는 영적 어두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 사도는 말하길,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안에 생명이 있었고, 생명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복음 1:4-5 절은

요한복음 1 : 4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 : 5 빛이 어두움에 비취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는 말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의 영혼을 밝혀 주는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에게 삶 의 목적과 의미와 중요성을 가르치는 빛이 예수님 안에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 빛의 인도함을 받으면 생명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영혼의 이 빛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빛을 잃어 버리니 마음에 어둠이 다가오게 되고 이제는 사망으로 나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영혼에 어둠이 들어 온 사람들에게 대해서 바울 사도는 엡 2:3 에서,

에베소서 2 : 3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어쩔 수 없이 사망의 열매를 맺게되었다!

영원함 사망의 심판으로 나갈 수 밖에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영혼에 어둠이 들어 온 사람은 피할 수 없이 우상 숭배로 나아갑니다.

로마서 1 : 21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로마서 1 : 22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로마서 1 : 23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려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려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숭배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덧붙여서 주의를 해야 할 것은, 어두움의 교묘한 형태인 교회 안에 들어 오는 이단입니다.

베드로후서 2 : 1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단은 그리스도인들을 직접 공격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꺾을 수 없음을 알고, 교리중에 민감한
부분을 가지고 교묘하게 공격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예수는 동정녀 탄생을 하지 않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fiction 이다. 그렇지만 그의 도덕성과 가르침은 아주 뛰어났다. 그의
가르침의 핵심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등입니다.

역사상 교회 안에 들어 왔던 이런 이단들은 유명한 사도들의 이름을 유용하여 자신들의 저작이 마치
유명한 사도들의 것인양 위장을 했습니다. 4 세기 때 유명한 교회 사가인 유세비우스는 그의 교회사에서
이런 종류의 책들을 소개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한국에서 도올 김용옥 교수가 자주 사용하는
도마 복음이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유세비우스는 그의 교회사에서 말하길,

“이단자들이 사도들의 이름을 사용하여 인증한 책들은 베드로 복음, 도마 복음, --등이 있다. 이 책들은
문체의 특성도 사도들의 문체와 판이하게 다르며, 그 책에 개진된 사실들의 취지와 의견도 정통 교리와
어긋나 있어 분명히 이단적인 사람이 만들어 낸 위서임을 증명해 둔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들은 문체의 특성도, 그 책에 개진된 사실들의 취지와 의견도 정통 교리와 어긋나 있어 분명히 이단적인 사람이 만들어 낸 위서임을 증명해 둔다! 이렇게 못박았습니다.

김용욱 교수는 이 책이 사도 도마가 쓴 것이 근래에 새로 발견된 것으로 잘못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4 세기 때 벌써 위서로 분류되어 이단으로 정죄되어 기독교 역사의 쓰레기 더미로 들어 간 책입니다.

우리는 이단이 우상 숭배의 다른 형태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은 도덕적 어두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적 어두움이 다가오면 곧바로 도덕적 윤리적 타락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 버리면 도덕은 절대성을 잃어 버리고 상대적으로 변합니다.

로마서 1 : 25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인본 주의로 떨어져 도덕적 윤리적 절대성을 잃어 버리니, 어둠으로 인해 마음이 빛을 잃게 되고, 삶의 방향과 목적과 가치관의 중심을 잃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 생명이 음식보다 중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함에도 불구하고, 생명보다는 음식을, 몸보다는 옷을(마 6:25) 더 중히 여기고 삽니다. 물질구득으로 인해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어두워진 마음을

마태복음 6 : 21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 : 22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마태복음 6 : 23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고 하십니다.

사람이 영혼이 생명의 빛을 잃어 버리게 될 때, 자신의 욕심의 만족을 위해 살아 갑니다. 욕심의 만족이 최대의 기쁨입니다. 부정부패가 사회에 만연합니다. 이것이 영적 사망으로 인해 도덕의 절대성을 상실한 인간의 영혼의 일반적 유형입니다.

요즈음 한국 사회는 가치 척도의 기준이 무너진, 사회의 도량형이 무너진 사회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고대사에서, 기원전 8 세기 여로보암 2 세가 다스리던 북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를 구가한다고 할 정도로 물자가 풍요하고 넉넉한 사회이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이렇게 풍부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 빈부격차, 사회적 부조리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회의 도덕적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이 때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 후 30 년이 지나지 않아 북이스라엘은 앗수르에게 정복되고, 북왕국 10 지파는 포로로 잡혀가 지금은 그 종족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를 로마제국의 멸망, 장개석 정부가 중국 본토를 다넘겨 주고 대만으로 쫓겨 난것, 근래에는 베트남의 멸망등, 역사 안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덕적 어둠이고, 그 결과입니다.

더우기 안타까운 일은 그래도 지도급에 있다고 하는 목사가 자살을 하였다는 충격적 소식입니다.

양떼들을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목사가 자살을 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살할 영혼을 위한 천국이 있는가없는가는 차치하고, 죽음의 가장 아름다운 형태인 순교도 자기 발로 스스로 걸어가 순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순교의 순간으로 몰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 주어야 순교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라는 사람이 자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잃어 버리면 영적 어둠이 다가오게 되고, 도덕은 절대성을 잃어 버리고 상대적으로 변하고, 이런 타락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 : 25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할 빛의 역할은

2. 빛은 열을 주고 생명의 동력이 됩니다.

생명의 유지와 성장을 위해서는 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유지와 동력이 되는 열이 빛에서 부터 옵니다. 동물들은 몸이 열을 잃어 버리면 신체는 싸늘하게 변하고 죽습니다. 아무리 추운 북극에 사는 곰이라 할지라도 살아 있을 때는 몸이 따뜻하나 죽으면 몸이 차거워지고 곧 얼어 버립니다. 사람도 죽으면 신체가 차거워집니다. 아무리 찬 바닷 속에 있는 고기라 할지라도 산 고기는 얼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몸에 열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도 열이 있어야 합니다. 악어는 알을 모래 속에 낳고 모래로 덮습니다. 햇빛이 모래를 열로 뜨겁게 할 때 알에서 악어 새끼가 나옵니다. 닭이 자신의 체온으로 달걀을 일정 기간 품어야 병아리가 나옵니다. 모체(母體)가 차거운 곳에서는 아무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적당한 열기가 있어야 생명이 탄생하고, 열의 근원이 빛입니다.

열로 인하여 생명체가 알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빛이 교회에 뜨겁게 비추어야 교회는 영적 탄생을 위한 산모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빛으로 교회를 뜨겁게 데워 주어야 교회에서 영적 탄생이 발생하게 됩니다. 냉랭한 교회는 영적 탄생이 없습니다. 믿음의 열기가 뜨거운 교회는 그 열기에 의해 새로운 생명이 많이 탄생하게 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햇빛이 없으면 모든 생명체가 얼어 죽듯, 교회에 예수님의 빛이 없으면 모두 얼어 죽고 맙니다. 교회에 영적 빛과 열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빛이 있어야 생물체는 건강하게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음지에서 자란 나무는 건강치 못하고 창백하게 키만 크고, 때에 따라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절히 태양 빛이 비추는 곳에서 자란 나무는 잎사귀도 진한 녹색이며, 건강하게 하늘 높이 퍼져 올라 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빛이 교회에 충만히 비춤으로 인해 교회는 열을 얻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예수님의 빛이 뜨겁게 비출 때 성도들의 믿음은 푸르고 건강합니다. 예수님의 빛이 없는 교회는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이 빛이 성도들의 삶을 충만하게 비추어 줄 때 성도들의 삶은 축복의 과실이 주렁 주렁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빛에 의해 성도는 동력을 얻고 살아 있는 유기체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처럼 성장해 갑니다. 빛이 없는 곳에서 자란 식물들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 못하듯, 그리스도의 빛으로 양육함이 없는 성도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성장을 할 수 없습니다.

이와같이 성도이건 교회건 간에 예수님의 빛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런 빛은 어떻게 공급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공급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열심 정도가 그 사람 안에 있는 빛의 강도를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빛이 그 사람의 영혼에 가득히 부어집니다. 기도를 통하여 말씀은 불길이 되어 타오릅니다. 기도를 게을리 하는 사람은 강한 빛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야 합니다.

다음은 빛된 삶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같이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모두 빛된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다른 종교는 인간 자체를 먼저 고치지 않고 수양과 절제를 통하여 도덕적 훈련을 한 후 사회의 빛이 되는 삶을 살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속을 고치지 않고, 겉만 고쳐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검은 피부에 밀가루로 범벅을 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희게 된 것입니까? 콩 심은 데서 콩 나고 팥 심은 데서 팥이 나옵니다. 육신으로 심어 육을 거두고 영으로 심어 영을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육으로 영적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먼저 네 자신이 변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자신이 어두움의 사람에서 빛의 사람으로 변해야 그 모든 행사에서 영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빛의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거두지 말라고 해도 빛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서는 빛의 아들이 되라는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 : 35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2 : 36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빛의 아들이 된 사람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것을,

마태복음 5 : 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 : 15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취느니라

마태복음 5 : 16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을 믿어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은 이미 **세상의 빛**이 된 사람들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빛을 남에게 나누어 주기만 하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빛이 너무 적어 나 혼자만 비추기에도 부족하다고 하고, 혹은 남에게 비쳐줄 만큼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옳은 말일까요?

아무리 작은 촛불로 다른 큰 초에 붙여 주어도, 원래의 촛불은 잃은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불길을 옮겨 주어도 큰 촛불은 스스로 태우며 큰 촛불로서 탑니다. 불은 나누어 주어도 잃지 않고 오히려 여럿이서 그 밝기가 점점 밝아지게 됩니다. 복음의 빛은 이런 것입니다. 교회의 빛은 이런 것입니다.

17 세 때 얇은 물 속으로 다이빙을 하다가 바위에 머리를 부딪혀 전신 마비에 걸린 조니 에릭슨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모습이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직도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갚을 수만 있다면...”

그러자 얼마 후에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니는 움직이는 입술에 붓을 물고 주님의 사랑을,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얼마 후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움직일 수 있는 입술과 목소리를 사용하여 자기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자신의 빛이 너무 부족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나하나만 비추기에도 이 불은 적다고 하시렵니까?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불빛의 크기에 상관치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작게는 집안 사람을, 크게는 동네사람을 비추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 : 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 : 15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취느니라

마태복음 5 : 16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빛의 아들이 된 여러분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가셔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게 됩니다.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셔서 로그인을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을 하세요
(twitter 안에서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

5. Retweet 를 하실 분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home 로 가셔서, 글을 쓰는 Box 에

RT @ 를 type 하신 후 , space 한 후, Retweet 할 내용을 paste 하시면 됨.